

KIA 윤석민, 본격 '실전모드' 돌입

최근 3군서 3경기 등판해 10이닝 2실점...어깨 이상없음 확인

김기태 감독, '진짜 실전' 2군 경기 등판 지시...복귀 진행 시작



KIA 윤석민이 본격적으로 '실전 모드'에 들어간다. 이제 2군으로 무대를 옮겨 등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민은 지난 9일 독립리그 구단 연천 미라클과 가진 KIA의 3군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제 어깨에 이상 없음을 완전히 확인했다. 2016년 시즌을 마치고 오른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재활해온 윤석민은 지난 4월28일 KT와 연습경기에서 등판해 2이닝을 던지면서 실전 피칭을 시작했다.

최근 3군에서 3경기 등판해 10이닝 2실점...어깨 이상없음 확인 김기태 감독, '진짜 실전' 2군 경기 등판 지시...복귀 진행 시작

2군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등판하는 것은 진짜 실전 단계다 실전 피칭 결과에 따라 1군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보통 재활을 마친 선수들은 2군에서 실전에 나가는 것으로 복귀 준비를 시작한다. 윤석민 역시 이제 겨우 복귀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윤석민이 2군 경기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몇 경기 등판을 거칠지, 1군 복귀 시점은 언제 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복귀할 경우 KIA 마운드가 큰 힘을 받는다는 예상도 '시기상조'다. 이제 막 2군행 이동을 허락받은 상황이라 어떤 것도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윤석민이 벗어나지 못했던 통증 재발의 고통과 불안감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실전 단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윤석민이 1·2군을 통틀어 실전 경기에서 등판한 것은 수술 전인 2016년 10월11일 LG와 와이어드카드결정전 2차전 등판이 마지막이었다. 아직 2군 등판 일정을 결정되지 않았지만 1년 반 만에 KBO리그 실전 무대에 나서게 된다. 김기태 감독도 윤석민의 복귀 과정에 대해서는 냉철한 관점으로 본다. 현재 1군에서 애쓰고 있는 투수들을 우선 고려해 언제 올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는 윤석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군 경기 등판을 허락하며 말없이 지켜봐왔던 윤석민의 복귀 준비를 조금씩 진행시키기 시작했다. 일단 2군 등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윤석민이 '확신을 안겨주는 시점'이냐 1군으로 호출할 전망이냐

박지성·안정환, 한국축구대표 월드컵 골잡이...3골씩 최다득점

대한축구협회

한국은 1954년 스위스월드컵을 시작으로 2014년 브라질월드컵까지 총 31경기를 치렀다. 통산 5승 9무17패로 월드컵 국가별 랭킹 26위다.

득점수가 경기수와 같다. 경기당 평균 1골씩 넣은 셈이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한국이 월드컵에서 터뜨린 골에 얽힌 다양한 기록을 소개했다.

통산 31골중 전반 득점은 6골 뿐이다. 반면 후반 이후에는 25골이나 나왔다. 가장 이른 시간 득점은 2010년 남아공대회 그리스전에서 이정수가 기록했다. 전반 7분 기성용의 프리킥을 받아 넣었다.

가장 늦은 시간 득점은 2002년 안정환이 이탈리아전 연장 후반 12분에 성공한 '역사적인 골든 골'이다. 90분 경기중에서 가장 늦은 골은 2002년 터키와의 3~4위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3분에 송종국이 넣은 골이다. 종료 직전 골의 임팩트는 1994년 미국 대회 스페인전에서 후반 44분 55초에 터진 서정원의 동점골이 더 강했다.

사상 첫 골은 1986년 멕시코 대회 아르헨티나전에서 나왔다. 박창선이 중거리 슈팅으로 역사를 장식했다.

월드컵에서 골맛을 본 한국 선수는 모두 22명이다.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안정환과 박지성으로 3골씩 기록했다. 박지성은 2002, 2006, 2010년 월드컵에서 연속 골맛을 봤다. 아시아 선수 중 세 대회 연속 득점을 올린 이는 박지성 뿐이다. 호주의 팀 케이힐도 3개 대회 연속(2006·2010·2014) 골을 넣었지만 2006년 당시 호주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이 아니었다.

최연소 득점 기록도 21세4개월의 박지성(2002년 포르투갈전)이



가토 있다. 최고령 득점은 2002년 폴란드전 당시 33세 11개월이었던 황선홍이다. 본선에서 2경기 연속으로 골을 터뜨린 선수는 유상철이 유일하다. 유상철은 1998년 프랑스 대회 벨기에와의 첫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한 대회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거나, 한 경기에서 두 골 이상을 넣은 한국 선수는 아직 없다.

31골 중 오른발로 넣은 골이 20골, 왼발은 8골, 헤더가 3골이다. 1998년 프랑스 대회 멕시코전에서 나온 하석주의 프리킥이 한국의 첫 왼발 득점이다. 이 골은 한국의 월드컵 참가 이후 최초 선제골이자, 전반 첫 골로 기록됐다.

위치를 보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의 득점이 18골, 바깥쪽이 13골로 집계됐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10년 남아공 월드컵까지 7개 대회 연속 프리킥 세트피스로 11골을 기록했다. 페널티 득점은 아직 없다. 2002년 대회에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을용과 안정환이 실축했다.

김연경, 아시안게임 참가 선언 "2연속 금메달 목표"

중상하이와 계약 끝 "새 팀은 중국 아니면 터키"

여자 배구대표팀의 최고스타인 김연경(30)이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참가를 공식화했다. 김연경은 9일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배구국가대표팀 언론 인터뷰에 참석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자대표팀은 뻣뻣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15일 개막하는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를 시작으로 8월 아시안 게임, 9월 세계선수권대회(일본)를 치른다.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팀 전력의 중심인 김연경이 필요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국보급 선수에게 3개 대회 출전은 너무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세계랭킹 포인트가 걸려있지 않

은 아시안게임 불참이 예상된 이유다. 실제로 중국, 일본 등은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세계선수권에 대비하기 위해 아시안게임에 주축 선수 일부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연경의 생각은 달랐다. 4년 전 인천에서의 좋은 기억을 다시 한 번 후배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김연경은 "사실 나는 큰 욕심은 없는데 다른 선수들이 큰 욕심을 갖고 있다. 2연속 금메달을 따고 싶어한다"며 웃었다. 대신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일정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발리볼 네이션스리그는 기존의 월드컵과 그랑프리 통합된 것으로 16개팀이 5주에 걸쳐 일정을 벌인다. 김연경은 중국(1주차), 한국(2주

차), 태국(4주차) 등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대회만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연경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네이션스리그에 다 가지 않는 것이다.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때문에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와 계약이 끝난 김연경은 여전히 새 팀을 구하는 중이다. 오라는 곳은 많지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사실 조금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이야기 가 나왔다. 터키와 중국 중 잘 결정하겠다. 네이션스리그 중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 초특급 선수로 꼽히던 고교 시절부터 태극마크를 단 김연경은 어느새 팀에서 베테랑급이 됐다. "처음 대표팀에 왔을 때는 선배들과 선생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후배들 때문에 든든하다. 지



금이 더 힘들다. 고교 3학년 선수를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하하." "22의 김연경으로 불리는 정효영(17·선명여고)을 두고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다. 경기하는 것도 못 봤다. 소문으로만 들었다"면서 "기대가 된다. 앞으로 여자배구를 위해 많이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오승환,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이어가

시애틀전 10이닝 퍼펙트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10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6회초 등판, 1이닝 1탈삼진 무실점 후투를 펼쳤다. 이날 오승환은 공 7개로 가볍게 1이닝을 막아냈다. 1-2로 끌려가던 6회 등판한 오승환은 라이언 힐리를 2구 만에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후 다음타자 마이크 주니노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이후 기에르모 에레디아는 초구(직구)로 3루수 앞 땅볼 아웃시켰다. 최고구속은 기에르모에게 던진



91.6마일(147km)이다. 오승환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1.65로 더욱 끌어 내렸다. 한편, 오승환은 토론토의 마무리 투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마무리 로베르토 오수나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염기훈,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 어려울 것"

스웨덴 언론 보도...러시아월드컵 한국과 같은 F조 속해

염기훈이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스웨덴 언론 보도가 나왔다. 스웨덴 축구매체 '축구채널(fotbollskanalen)'은 "염기훈(수원 삼성)이 9일 울산 현대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부상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로 드러나 염기훈의 월드컵 출전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과 같은 F조에 속해 있다. 한국과 스웨덴은 6월18일 격돌한다. 한국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스웨덴으로서는 염기훈의 부상이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태용호는 김진수(전북), 김민재(전북)에 이어 염기훈까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대표팀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남배구FA 최대어 전광인, 한국전력 떠난다

2017~2018시즌 남자배구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 손꼽히는 전광인이 시장에 나온다. 전광인은 9일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앞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싶다"면서 한국전력과의 이별을 공식 선언했다. 전광인은 이미 지난 3일 공정배 단장과 김철수 감독에게 "2차 교섭에 나서겠다"고 전달했다.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2차 교섭은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팀들과만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전광인은 "단장님과 감독님께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배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두 분 모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감독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사실 안 좋게 볼 수도 있을텐데 내 선택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타 구단으로 눈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를 재직시키기 위함이다. 전광인은 "지난 시즌에는 배구를 즐기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못했던 것 같다"면서 "내가 조금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팀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다. 더 나은 시설을 찾으려는 의지도 있다. 전광인은 고집적인 무릎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전력의 환경과 소속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른 팀에 비해 약하다"면서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몸이 좋은 편이 아니니 그런 부분에서 잘 케어해줄 수 있는 팀에 가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이적으로 전광인은 대학 선배인 서재덕과 다른 길을 걷게 됐다. 전광인보다 1년 앞서 FA 자격을 행사한 서재덕은 팀 잔류를 택했다. 전광인은 "재덕 형이 FA 자격을 얻었을 때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남았다. 자기는 겁이 많다고 하더라면서 '나도 겁은 당연히 난다. 그래도 변화를 주고픈 마음이 크다. 아직 배구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에게는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